

호남의 정체성 연구 성과…한국학 자료 10만 점 수집

개원 10년 한국학호남진흥원 기록문화유산 확보
‘장승법수’·‘간양록’·‘김수연 왕지’ 등 보물급 다수
“2~3년 내 보관 공간 포화…전문 수장고 시급”

1434년 무과 합격증서인 ‘김수연 왕지’,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서신 등을 모은 ‘양선생문답집’, 호남 대표 유학자 수는 강항의 일본 체류기 ‘간양록’ 등 ….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호남진흥원)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 가운데 보물급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호남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희귀 기록문화유산이다.

호남진흥원이 한국학 자료 10만점 수집을 달성해 ‘화제’다.

호남진흥원은 4일 광산구 수완동 아이와즈 3층 가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활동 내역 등을 소개했다.

올해까지 멸실, 훼손 위기에 놓인 자료 1만4455점을 추가 확보한 누적 자료까지 포함하면 총 10만1696점에 달한다.

이번 호남진흥원의 자료 10만점 달성은 전국 국학진흥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기관 설립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호남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와 번역, 교육 등 시민과 공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영기 원장은 “오늘의 10만점 자료 수집은 지역 문인들의 관심과 성원, 진흥원 구성원들의 헌신 등이 맞물려 이뤄낸 결실”이라며 “10만점 달성을 계기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 나가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흥원 내 수장고가 2~3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수장고를 확보하는 일이다. 다가오는 개원 10주년에 걸맞는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국학진흥기관 소장 규모를 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이 68만 여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4만9000여 점, 울국 국학진흥원이 2만9000여 점에 이른다.

호남진흥원의 한국학 원본 자료 대규모 확보는 호남의 인문을 비롯해 사회, 역사, 예술 등 분야에 걸쳐 연

구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료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자료 외에도 보물급이 더 있다. 1389년 무학대사가 간행한 불경사전 ‘장승법수’를 비롯해 1452년 통도사 신도인 법노가 가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라니경’을 인출해 3권 1책의 절첩본으로 엮은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료(11월 30일 기준) 중에는 고문서가 62.4%인 6만3535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서 22.3%(2만2698점), 근현대자료 9.3%(9471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존현황은 전남자료가 73%인 7만4230점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광주 20.6%(2만875점), 전북 4.4%(4519점)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보성이 가장 많은 2만6833점, 광주 2만875점, 나주 8875점, 영광 6094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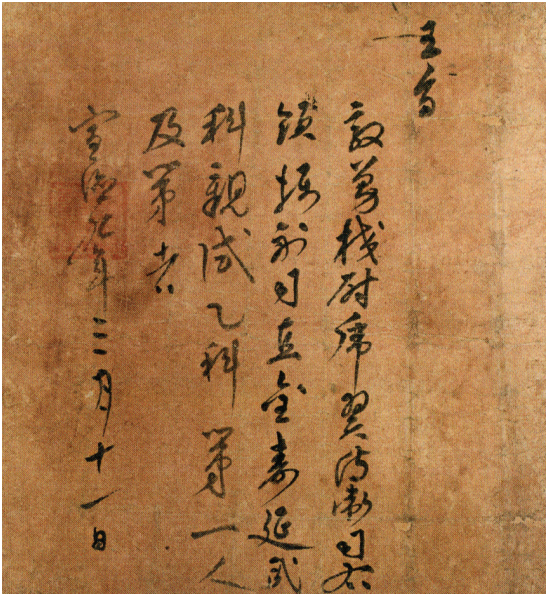
‘음식보’, ‘환영지’ 등 호남의 대표 자료도 있다. ‘음식보’는 1756년 나주 도래 풍산홍씨 문중에서 홍수원의 아내 진원오씨와 며느리 진주정씨가 작성한 한글 조리서로 전라도식 식재료 및 요리 이름 등이 수록된 희귀본 자료다. 영남지역은 음식 관련 자료가 많지만 호남에서는 발굴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주자서절요’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호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인 죽전 박광전(1526~1597)이 퇴계 이황이 저술한 것을 받아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는 희귀본이다.

아울러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 존재 위백규(1727~



채용신 작 '기우만 초상화'



1434년 김수연 왕지



강세황 작 '노매도'

1798)가 제작한 환영지 목판과 초안도 포함돼 있다. 당시 정조 명으로 진상됐던 자료로 남아 있으며 목판과 초안은 희귀본이다.

한편 자료 확보 과정 등을 설명한 안동교 부장은 “기록문화유산 가운데 국가유산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학술집담회를 통해 자료 평가를 거쳐 보물 자료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독립 청사와 수장시설이 없는 여건 속에서 10만점 넘는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5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단체인 ‘청강창극단’의 공연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2026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전남문화재단, 2026년 1월 5일~16일 신청 접수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를 진행한다. 전남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총 23억 50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행정·서류·인터뷰 심의를 거쳐 2월 12일 재단 누리집과 NCAS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2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하거나 활동 근거지를 둔 예술인과 단체다. 일부 사업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상 수상자, 명예예술인, 장애예술인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올해 공모는 총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됐

다. 전문예술인의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는 기본 사업뿐 아니라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발굴·개발하는 프로그램, 창작공간이 운영되는 기획사업, 실험적 시도를 장려하는 자율기획형 프로젝트,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 확대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예술인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도 열린다. 서부권(무안·남양·북함·주민센터 공연장,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근교권(담양·양·담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 10일 오후 2시), 동부권(순천·전남도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 13일 오후 2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일부 집중지원 분야(지역특화콘텐츠·창작공간·자율기획형·공연장 협력)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가 추가로 진행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역 한국화단 최고 원로 석성 김형수 화백 별세

지역 한국화단의 최고 원로인 석성(碩星) 김형수 화백이 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전남 해남 출신인 김 화백은 목포 문태중 입학 후 광주서중(5년제)으로 전학해 졸업했다. 경남 함양 안양중 미술교사, 사레지오 교사와 전남대 예술대학 강사로 활동하며 후학들을 길렀다.

지난 1943년 심산 노수현 선생 문화에 들어가 그림 공부를 시작했으며 남농 허건 선생, 동강 정운면 선생을 사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2002년 문예진흥원으로부터 대한민국미술원로작가 지정을 받았다.

석성 회화의 특징은 대생력의 견고함, 건강한 필선 등이 꼽힌다. 소묘에서부터 산수, 풍속화에 이르기까지 화역(畵域)이



고 김형수 화백

넓으며, 특히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비롯해 농악놀이 등 풍속화대생이 뛰어나다.

고인은 지난 1981년 결성된 한독미술협회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당시 멤버로 한국화가 윤보 김기창, 내고 박생광, 산동 오태학, 육산 김옥진, 서양화가 장리석, 임직순을 비롯한 작가들이 망라돼 있다. 한편 자제로는 상용, 상준, 동훈, 용민 씨 등 3남1녀가 있다. 발인은 6일 오전 8시 30분 천지장례식장이며 장성 선영에 안장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의 책에 이재명 대통령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예스24, 독자 투표

독자들이 뽑은 예스24 올해의 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쓴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선정됐다.

4일 예스24에 따르면 이 회사 PD들이 추천한 300종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독자 투표에서 전체 119만 5900표 중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1만

5788표(3.4%)를 얻어 최다 득표작으로 선정됐다. 전체 투표수가 100만표를 돌파한 건 2003년 올해의 책 투표 시작 이후 처음이라고 예스24는 전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자기계발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가 1만 3995표(3.0%)를 얻어 2위를, 성해나 소설집 ‘흔모노’가 1만3천764표(2.9%)의 지지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연말 수놓는 클래식 발레…‘호두까기 인형’ 올해도 만나요

광주시립발레단, 따뜻한 추억 공연

19~2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겨울의 찬 기운이 스며들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대가 있다.

바로 광주시립발레단이 대표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차이코프스키 선율을 따라 클라라의 꿈속 여정에 발맞추다 보면, 어느새 관객은 한겨울 꿈결 같은 동화 속으로 스며든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142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을 총 4회(금 오후 7시30분,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에 걸쳐 선보인다.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초청공연(2회)도 이어져 연말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작품은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원작으로 한 전 2막의 고전 발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클라라가 꿈속에서 생쥐왕과 전투를 벌이고, 호두까기 왕자와 눈의 나라로 향하는 장면은 매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장면이다.

2막에서는 과자의 나라를 배경으로 다양한 춤이 펼



‘호두까기 인형’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쳐진다. 스페니쉬 초콜릿, 아라비안 커피, 중국의 차, 러시아 트레팍 등 각 나라를 상징하는 춤이 이어지며 마더진저와 봉봉들의 유쾌한 장면도 가족 단위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탕요정과 왕자의 파드되와 ‘꽃의 왈츠’가 이어지며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매력이 절정을 이룬다.

올해 공연은 박경숙 예술감독의 재안무로 새롭게 선보인다. 클래식 발레의 결을 유지하되 세련된 연출을 더해 장면마다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었다. 특히 ‘눈의 나라’ 군무는 24명의 발레리나가 빛어내는 정교한 움직임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듯한 장관을 만들며 하

이라이트로 꼽힌다.

음악은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박승유가 맡고, 빛고을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풍성한라이브 오케스트라가 더해지며 발레와 음악의 균형을 더욱 섬세하게 끌어올린다.

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997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7만여 명을 넘긴 대표 레퍼토리로 매년 연말 전석 매진을 이어오는 ‘광주의 겨울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R석 5만 원·S석 3만 원·A석 2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6세 이상 관람 가능.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